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재정과 소통 해결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 만들 것”

정진영 예비 후보자

정리: 이서림 기자 slleef001@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경희 구성원들은 이번 총장선거를 계기로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및 소통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재정 확충에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를 대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많은 준비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또한 스스로없이 소통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해 우리학교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양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대학행정을 경험했다. 올해 초까지 서울캠퍼스에서 5년 6개월 동안 대외협력부총장,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보직을 수행했고 국제캠퍼스에서 국제대학장, 국제대학원장,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양 캠퍼스의 행정을 모두 경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준비된 총장으로 16대 총장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다.

Q2. 최우선 정책은.

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국제 양쪽 캠퍼스에 대규모 R&D밸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재정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뒤편의 9만여 평 부지에 융복합 R&D밸리를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들을 의료지구와 주거지구에 건설하려고 한다. 서울캠퍼스의 선동호 주변 병설 학교들을 외부로 이전해 2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특구 및 바이오허브 전략과 연계해 바이오헬스 R&D밸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금융·회계·설계·건설업계의 전문기업들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했다.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캠 R&D밸리의 의료지구 에 제3의료원·한방병원·호텔을 건립하고, 서울캠 R&D밸리의 경희여중·고 부지에 의과대학·한방병원·의과학연구원을 신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용과 더불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R&D밸리 건설로 확보할 수 있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들어있는 국가 R&D사업비는 24.1조원이다. 우리학교 대외연구비는 연 1,300억 원 정도이고 이에 따른 간접비 수익은 200억 원 정도다. 경쟁대학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임기 4년 동안 이를 두 배로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과의 R&D 협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정치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대(아바나-삼페인)(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경희대 국제캠퍼스 교무처장, 경희대 국제대학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R&D사업 통해 7천억 원 이상 재정 마련

• 교육 공간 신축 및 SW, AI 강의 증설

• 산학협력관 건립, 연구센터 집중 육성

• 대학평의위원회 활성화, 분권화, 창구 통한 상시 소통

“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정 확충, 발전기금 유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에 힘쓸 것이다

”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우리는 기능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장단점이 있는 일이다. 공직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학교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예산 제약을 고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적절한 방법과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행정직원의 경우, 업무능력에 따라 정규직 채용 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의 교육여건은 명문대학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첨단 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만들어 차례로 건축해야 한다.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단과대학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서울캠의 의과대학과 국제캠의 응용과학대학부터 신축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심 강의, SW와 AI 관련 강의도 증설할 것이다. 매학기 일정수의 강의를 학생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할 것이다. 서울캠 실내체육관도 건립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첫 번째로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국제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을 확충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단과대학의 교육여건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충하고 양 캠퍼스에 국제학사(I-HOUSE)를 건립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는 우수한 연구진, 실험 공간, 연구비, 대학원생이라는 4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우선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양 캠퍼스에 산학협력관을 건립할 것이다. 서울캠에는 대운동장을 활용해 산학협력관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것이다. 국제캠에는 전자정보대학 옆 공간에 산학협력관과 응용과학대학관을 건립할 것이다. 과학·기술·의료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연구센터를 임기 동안 5개 정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또한 우리학교의 우수 교원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석학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경희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가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는 것, 특히 모교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석사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학부 3, 4학년생이 교수 연구프로젝트와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장학금으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통과 화합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

은 없다. 첫째,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 대표도 자유롭게 토의 안전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분권화를 통해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활력을 찾도록 할 것이다. 학장, 원장 선임도 구성원들의 의견과 희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단체가 초청하면 언제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첫째, 옴부즈 제도가 학생 가까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둘째, 성폭력과 인권침해 등 민감한 이슈는 통합민원과 분리돼서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 다뤄질 것이다. 셋째, 경희인권센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앞장서야 하는 분야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LINC+ 사업은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다양해진 사회진출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할 것이다.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재정 확충에 도움 되는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SW중심대학사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많은 학생이 SW기초교육을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고, 여러 학과가 SW 융합전공을 만들고 있다. SW기초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SW 융합전공 신설이 더 많은 학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Q12.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한 경험에 있다. 만일 총장이 된다면 대학의 국내외 홍보 전략과 학술기관, 동문, 지역사회,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외협력에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들과의 대외협력에 긴요하다. 공약으로 제시하는 R&D밸리의 건설은 서울시와 동대문구, 경기도와 용인시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많은 협의를 진척시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둘째, 발전기금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이다. 기부를 기다리기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셋째, 장학 정신 구현을 위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이슈에서 우리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다.